2015년 제50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국제부

■ 기　　간 : 2015년 7월 18일(토)~7월 24일(금)

■ 장　　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 한국대표단(총13명)

- 단장 : 이주성(협회 부회장)
- 대표 : 손석련(협회 이사)
  김점동(협회 이사)
  김한우(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안정근(협회 회원)
  김병수(협회 회원)
  최영림(협회 회원)
- 전시회 참가
  이대선(한국스테노)
  유덕자(한국스테노)
- 경기대회 출전
  손정아(국회)
  최기예(한국스테노)
  김양수(한국스테노)
  양세희(한국스테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30개국, 550여 명 참가
(참가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 참가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우리나라 속기기계 전시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홍보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 논의
- 헝가리 국회 방문과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 참가

■ INTERSTENO 총회 등 행사 일정

일자	장소	일정
7월 18일(토)	코르비누스 대학 Groundfloor	등록 및 전시회 부스 설치
	코르비누스 대학 Room 2001	Council meeting 1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Aula	개회식 및 환영다과회
7월 19일(일)	코르비누스 대학 I.Ea.	IPRS meeting 1 참가
		Excursion 1 - 부다페스트 버스 투어
7월 20일(월)	코르비누스 대학 3rd floor	Real Time speech capturing competition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I.Ea.	IPRS meeting 2 참가
7월 21일(화)	코르비누스 대학 I.Ea.	Conferences
7월 22일(수)	헝가리 국회	헝가리 국회 방문
	City	Council dinner 참가
7월 23일(목)	코르비누스 대학 Room 2001	Council meeting 2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I.Ea.	General Assembly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Aula	시상식
	선상	송별만찬 및 선상 파티
7월 24일(금)		Excursion 4 - 다뉴브 벤트

■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1. 개회식

총회 개최 장소인 코르비누스 대학 Aula에서 개최된 오프닝 행사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자

국 국기를 들고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협회 부회장인 이주성 단장이(한국팀) 대표로 단상에 올랐다.

2.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2014년도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3000€를 모았지만 2015년도는 2000€에 그쳤다. 올해 예산 중 반은 인터스테노에서 모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2016-2017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의가 필요하다.

인터스테노가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의 책임자를 구하려고 한다. 한 달에 250€를 상정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각국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링,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등의 업무나 인터스테노의 로고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업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라 전담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들은 중역회의를 위해 사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속기사부(IPRS)가 이제 인터스테노와 병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체결되었다.

인터스테노 속기사 자격증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사항들이 인터스테노가 지지하는 속기사의 조건으로 적합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2016년 9월에 IPRS meeting이 예정돼 있다. 다른 국가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IPRS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중앙위원회는 독일 베를린으로 결정되었다.

3. General Assembly(총회)

2차 중앙위원회 폐회 후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어 결정된 어젠다들에 대해 순서대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 투표에 의해 결정된 보드 멤버는 다음과 같다.

회장 : Dr. Fausto Ramondelli(이탈리아)
부회장 :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사무총장 : Danny Devriendt(벨기에)
Jury President : Georgette Sante(벨기에)
멤버 : Keliang Tang(중국)
멤버 : Russel page

4. IPRS meeting

①1차 IPRS meeting(7월 19일)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주제발표 후에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 Ayse Yedekci(터키) : The post-reporting services at tha Grand National Assembly of Turkey in th information Age
- John Vice(영국) : Interruptions in Parliamentary Reporting
- Eero Voutilainen(핀란드) : Eduksi - new information technology for parliamentary reporting

②2차 IPRS meeting(7월 20일)

1차 미팅 때와 같이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 Wouter Zwijnenburg(네덜란드) : Short web summaries - the profession of stenographers in the internet era
- Giulia Torregrossa(이탈리아) : Dicta and acta at the Italian Senate Assembly reports and tweets : two different era

5. 헝가리 국회 방문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헝가리 정부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국회의사당을 짓기로 하고 1882년 건축설계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부다페스트 기술대학교 교수인 임레 쉬테인들이 당선되었다. 실제 건축공사는 1887년에 시작되었고 완공은 쉬테인들이 사망한 1902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헝가리 의회는 단원제이지만 건축 당시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건물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지어졌다.

엄격한 신분확인 후 검색대를 통과하여 들어서면 거대한 중앙 계단이 나온다. 23캐럿 황금과 수천 개의 보석이 건물 내부를 장식하고 있으며 곳곳에 프레스코화와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태피스트리 등이 가득하다. 또한 대표단 방의 복도에 숫자가 매겨진 길쭉한 재떨이가 있는데 회의실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이 이곳에 시가를 놓아두곤 했다고 한다.

빈 회의장에 들어서자 우리 방문단은 속기석의 위치를 궁금해 하여 질문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바로 아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6. conferences

오전 1차 세션에서 5개 주제, 오후 2차 세션에서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대표단 중 손석련 이사와 김한우 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이 Current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he prosecution과 Real time captioning technique for remote local broadcasting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컨퍼런스의 전체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Training and Competencies
- Tibor Varga, Katalin Varge(헝가리) : The present state of typing education in Hungary
-Takahiro Sumino(일본) : Challenges in implementing Japanese language for Intersteno competitions

▲Speech-recognition in education
-Seokyeon Shon(한국) : Current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he prosecution
-Tatsuya Kawahara(일본) : Captioning lectures with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suguo Kaneko(일본) : Supporting technology in bilateral communication for hearing impaired in Japan

▲Live text production and quality
-Kim Hanwoo(한국) : Real time captioning technique for remote local broadcasting
-Juan Martinez(스위스) : Quality-related criteria with respect to live speech-to-text services
-Patricia Graver(미국) : Quality real time text : how to achieve, measure, and utilize it worldwide

▲Parliamentary communication
-Domingo Jose Mazza(아르헨티나) : Parliamentary communication and publications : from the process of the law to the quality of the law
-Carlo Eugeni(이탈리아) : ParElOn - The online electronic parliament for the new democracy

7. 속기경기대회(7월 18일 ~ 7월 20일)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3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에 손정아, 최기예, 김양수, 양세희, 이상 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대표로 선발되기까지 예선전과 최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선발된 만큼 발군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한 결과 2위(손정아)와 공동3위(최기예)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8. 전시회(7월 18일 ~ 7월 23일)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 장소인 코르비누스 대학 1층 Groundfloor에 한국팀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행사 기간 내내 한국스마트카스의 전시회가 진행됐다. 한국형 속기 장비인 CAS의 다양한 기종이 전시되었고 총회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중에는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연해 보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9. 시상식 및 송별만찬

각 종목별로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리얼타임대회에서는 한국의 손정아 속기사가 2위, 최기예 속기사가 공동 3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각 국가별 메달 수상 인원(총 92개)
체코(46), 이탈리아(13), 중국(11), 미국(6), 터키(4), 헝가리(4), 한국(2), 독일(2), 슬로바키아(2), 폴란드(1), 네덜란드(1)

시상식 종료 후 크루즈에서 송별만찬과 파티를 하며 각국의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미를 장식한 레이저 쇼는 인터스테노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10. 당일투어(Excursion)

이번 총회 중에는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다페스트 시내투어 2개와 EGER지역 투어, 다뉴브 벤트 투어의 4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 참가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

링 종목이 열린 20일과 헝가리 국회를 방문한 22일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2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부다페스트 시내 버스투어에서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영웅의 광장, 치타델라, 어부의 요새, 마차슈 성당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뉴브 벤트 프로그램 참여로 부다페스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인 센텐드레, 비셰그라드, 에스테르곰을 돌아보며 총회 기간 중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었다.

■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 현황과 의회속기 및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에서 2위와 3위를 수상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과시했다.
- IPRS 미팅과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접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가 마련한 만찬은 한중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속기 기술을 홍보했다.

■ 건의사항

- 한국의 선진화된 속기 및 기록문화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스테노 회원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인터스테노에서는 7종목의 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명의 선수가 여러 종목에 동시 출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체코의 경우는 전체 92개 메달 중 46개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어로 출전 가능한 여타 종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인터스테노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경기대회에서도 11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중 간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